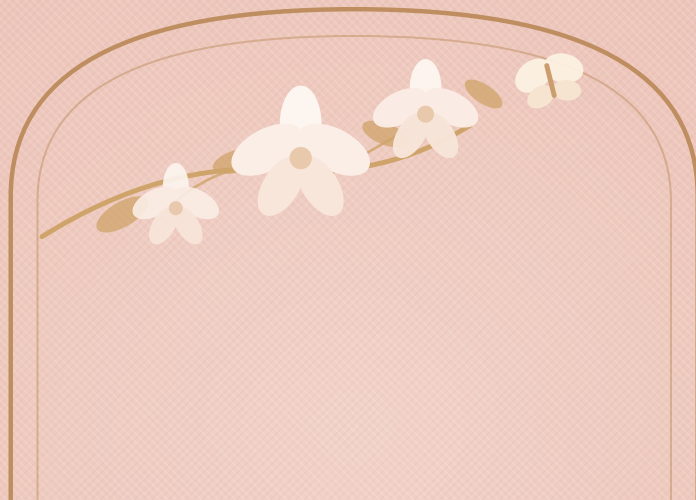




연애운 한방 풀이

새로운 인연, 나다운 사랑

고 객 명 홍길동

출생연도 1994년 (양력 1월 18일)

발 행 일 2026-01-01

나의 출생 정보와 풀이 기준

입력하신 정보와, 이 책이 다루는 범위입니다.

출생 정보	1994년 1월 18일 · 양력 · 시간 미상
사용한 역법	절기(節氣) 기준 만세력
시각 기준	대한민국 표준시 (동경 135도)
자시 기준	야자시 (일주 유지)
산출한 기둥	세 기둥 (여섯 글자) · 시주 제외

- 출생 시각을 몰라 시주를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오행 분포는 아는 6글자 기준입니다.
- 표준시(동경 135도) 시계 시각 그대로 계산했습니다. 국내 대중 만세력과 같은 기준입니다. 진태양시 보정을 적용하면 절입·자시 경계 출생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94년 1월 18일생 남성으로 계산했습니다. 출생 시각이 입력되지 않아 시주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시주를 임의로 만들면 나머지 해석까지 함께 들어지므로, 연·월·일주 여섯 글자로만 봅니다. 오행 개수를 셀 때도 분모를 여덟이 아니라 여섯으로 두었습니다.

현재 연애 상태도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솔로인지, 썸을 타는 중인지, 연애 중인지에 따라 29쪽부터의 만남 방법과 48·49쪽의 실행 계획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는 채 하나로 쓰면 셋 중 둘에게는 맞지 않는 글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면은 세 경우로 나눠 적었습니다.

이 책이 하지 않는 것도 적어 둡니다. 결혼할 나이를 숫자로 찍지 않고, 배우자의 키나 외모를 확정하지 않으며, 만날 장소를 운명으로 못 박지 않습니다. 근거를 만들 수 없는 값이라서입니다. 대신 어떤 조건에서 그런 해석이 나오는지를 밝힙니다.

- 1 출생 시각을 알게 되면 알려 주십시오. 시주가 서면 하루의 흐름과 배우자궁 해석이 더해집니다.
- 2 현재 연애 상태를 알려 주시면 29~36쪽과 48·49쪽이 그 상태 하나로 다시 쓰입니다.

출생 시각을 알려주시면 시주(時柱)까지 넣어 더 좁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 기둥으로 해석했습니다.

제 2 장

반드시 포함하는 사주원국과 기본 해석

4 - 12

한눈에 보는 나의 사주원국

계유(癸酉) · 을축(乙丑) · 갑진(甲辰). 시주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시주 말년·자녀	일주 중년·본인	월주 청년·부모	연주 초년·조상
십성	—	일간	겁재	정인
음양오행	—	갑(양목)	을(음목)	계(음수)
천간	—	갑 甲	을 乙	계 癸
지지	—	진 辰	축 丑	유 酉
음양오행	—	진(양토)	축(음토)	유(음금)
십성	—	편재	정재	정관
지장간	—	을 · 계 · 무	계 · 신 · 기	경 · 신
12운성	—	쇠	관대	태
12신살	—	천살	화개살	장성살
신살·귀인	—	금여성 백호대살 현침살 화개살	천을귀인 화개살	천문성 도화살



일주 동물 · 용

품이 크고 상상이 넓습니다. 판을 키우는 데 강합니다.

일간은 갑(甲), 큰 나무에 해당하는 양목입니다. 나를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일지 진(辰)은 물기를 머금은 흙이고 편재에 해당합니다.

출생 시각을 알려주시면 시주(時柱)까지 넣어 더 좁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 기둥으로 해석했습니다.

나의 오행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목2 화0 토2 금1 수1. 화(火)가 비어 있습니다.

이 해석의 근거

오행 목2 화0 토2 금1 수1

여섯 글자 기준으로 목이 둘, 토가 둘, 금과 수가 하나씩입니다. 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화는 드러내고 표현하고 온도를 올리는 기운입니다. 이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은 감정을 못 느낀다는 뜻이 아니라, 느낀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가 좁다는 뜻입니다.

연애에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작아서가 아니라 표현할 방법을 못 찾아서 말이 줄어들입니다. 표현을 자주 하는 상대를 만나면 이 간격이 관계 내내 주제가 됩니다. 반대로 말수가 적은 상대와는 편하지만 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멈추기 쉽습니다.

목과 토가 각각 둘인 구조는 균형이 나쁘지 않습니다. 목은 나 자신과 내 편, 토는 내가 다루는 대상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현실을 관리하는 힘이 함께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상대의 일상까지 챙기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음양은 음 넷, 양 둘입니다. 음이 많은 구조는 먼저 나서기보다 반응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18쪽에서 다루는 '먼저 다가갈 것인가'의 근거가 됩니다.

오행을 관계로 옮기면 이렇게 읽습니다. 목은 나와 내 편, 화는 표현, 토는 현실, 금은 규범, 수는 받아들임입니다. 이 원국은 표현 칸만 비어 있고 나머지는 갖춰져 있습니다. 관계를 꾸려 가는 재료는 충분한데 시작하는 도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도화·홍염 등으로 살펴보는 나의 매력 요소

연지 도화살. 첫인상보다 두 번째 인상이 좋은 쪽입니다.

이 해석의 근거

신살 천문성 · 도화살 · 천을귀인 · 화개살 · 금여성

적용 기준상 해당하는 것은 연지 기준 도화살, 연지 기준 천문성, 월지 기준 천을귀인과 화개살입니다. 홍염살은 이 원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없다고 적습니다.

도화살은 사람을 끄는 자리로 봅니다. 다만 화가 없는 구조에 붙은 도화라, 먼저 눈에 띄는 화려함보다 두세 번 만났을 때 남는 인상 쪽으로 작동합니다. 첫 만남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는 타입은 아니고, 두 번째 만남에서 '생각보다 괜찮다'는 말을 듣는 쪽입니다.

천을귀인은 어려운 국면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붙는 자리입니다. 연애에서는 소개로 이어지는 인연에 힘이 실리는 쪽으로 읽습니다. 29쪽에서 만남 방식을 고를 때 이 점을 근거로 씁니다.

화개살은 혼자 있는 시간에서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매력으로 보면 깊이 쪽입니다. 얇고 넓은 관계보다 한 사람과 오래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강점이 드러납니다.

천문성은 생각이 깊은 자리로 봅니다. 대화에서 가벼운 농담보다 한 주제를 오래 이야기하는 쪽에서 매력이 드러납니다. 소개팅 같은 짧은 자리보다 두세 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유리한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이 원국의 매력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한 번 인식되면 오래 갑니다. 첫 만남에서 안 통했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두 번째 자리를 만드는 데 힘을 쓰시길 권합니다.

- 1 첫 만남에서 승부를 보려 하지 마십시오. 이 원국은 두 번째 만남에서 점수가 올라갑니다.
- 2 소개 자리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천을귀인이 걸린 원국은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인연이 더 잘 풀립니다.

앞으로 12개월의 연애운 달력

12개월 흐름표입니다. 사주 해석상의 흐름이며 성공률이 아닙니다.

아래 표는 발행월부터 12개월간의 흐름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표는 통계적인 연애 성공률이 아닙니다. 월지와 세운이 원국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해석한 것이고, 같은 달에도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또 하나, 이 원국은 월별 편차가 큰 편이 아닙니다. 화가 없고 목·토가 고르게 있어 계절에 따라 크게 출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통'인 달이 많습니다. 억지로 등급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시기	해석상의 흐름	이 시기에 할 일
1~2개월	보통 — 큰 변화 요인 없음	표현 습관 만들기
3~4개월	참고 구간 — 금 기운, 판단이 분명해짐	아닌 관계 정리하기
5~6개월	보통	소개 자리 부탁해 두기
7~8개월	참고 구간 — 수 기운, 표현이 수월	먼저 연락해 보기
9~10개월	보통	만난 사람 다시 보기
11~12개월	변화 구간 — 결론이 나는 흐름	미룬 결정 내리기

- 1 '참고 구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보통인 달에 준비해 둔 것이 참고 구간에 쓰입니다.
- 2 표의 오른쪽 열만 달력에 옮겨 적어 두십시오. 왼쪽 열은 근거이고 실제로 쓰는 것은 오른쪽입니다.

나는 어떤 만남의 방식이 잘 맞을까?

소개가 1순위, 반복 모임이 2순위입니다.

이 해석의 근거

오행 목2 화0 토2 금1 수1

근거부터 적습니다. 월지의 천을귀인은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도움에 힘이 실리는 자리입니다. 화개살은 낯선 자리에서 에너지가 빨리 닳는 쪽입니다. 식사가 없어 첫 대화를 끌고 가는 데 힘이 듭니다. 이 셋을 합치면 만남 방식의 순위가 정해집니다.

소개가 1순위입니다. 소개 자리는 중간에 사람이 있어 첫 대화의 부담이 가장 적고, 서로의 배경이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어 정 계열이 많은 이 원국에 잘 맞습니다.

반복되는 모임이 2순위입니다. 두 번째 인상에서 이기는 원국이라 같은 사람을 여러 번 보는 자리가 유리합니다. 한 번 가고 끝나는 행사보다 정기 모임이 낫습니다.

온라인은 3순위입니다. 첫 대화를 글로 끌고 가야 하는데 식사가 없어 여기서 힘이 듭니다. 다만 글은 시간을 들여 쓸 수 있으므로 즉석 대화보다는 낫습니다. 쓴다면 프로필에 취미와 생활 리듬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유리합니다.

방식	이 원국과의 맞춤	근거
지인 소개	1순위 · 권함	천을귀인 · 첫 대화 부담이 적음
반복 모임	2순위 · 권함	두 번째 인상에서 이기는 구조
온라인	3순위 · 조건부	식상 없음 — 대신 글은 시간을 들일 수 있음
일회성 행사	권하지 않음	화개살 — 낯선 자리에서 빨리 닳음

연애할 때 맞는 사람과 결혼생활이 편한 사람

설렘이 큰 사람과 생활이 편한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의 근거

오행 목2 화0 토2 금1 수1

연애할 때 끌리는 유형과 결혼생활이 편한 유형이 이 원국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오래 만나고도 결정을 못 하거나, 반대로 편한 사람을 설렘이 없다는 이유로 놓칩니다.

연애에서 끌리는 쪽은 표현이 화려한 사람입니다. 화가 없는 구조는 화가 많은 사람에게 끌립니다. 없는 것을 채워 주는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생활에서 편한 쪽은 리듬이 맞는 사람입니다. 정재가 강한 구조는 예측 가능한 일상에서 안정을 얻습니다. 표현이 화려해도 리듬이 불규칙하면 몇 년 뒤에 소모가 큼니다.

둘 다 갖춘 사람을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쪽을 우선할지 미리 정해 두시라는 뜻입니다. 이 원국에는 리듬 쪽이 더 중요합니다. 표현은 상대에게 요청해서 늘릴 수 있지만, 리듬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기준	연애에서 끌리는 쪽	생활이 편한 쪽
표현	화려하고 잦음	적어도 일정함
생활	즉흥적이고 변화가 많음	리듬이 예측 가능함
돈	쓰는 데 거리낌 없음	쓰고 모으는 기준이 있음
소통	감정을 크게 표현	필요한 말을 제때 함
책임	순간의 몰입	약속을 지킴

연애운 한방 총평 — 나의 인연과 사랑의 방향

시각이 낮고 유지가 강한 구조. 표현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사용한 역법	절기(節氣) 기준 만세력
시각 기준	대한민국 표준시 (동경 135도)
자시 기준	야자시 (일주 유지)
산출한 기둥	세 기둥 (여섯 글자) · 시주 제외
발행 번호	20260101-0003

- 출생 시각을 몰라 시주를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오행 분포는 아는 6글자 기준입니다.
- 표준시(동경 135도) 시계 시각 그대로 계산했습니다. 국내 대중 만세력과 같은 기준입니다. 진태양시 보정을 적용하면 절입·자시 경계 출생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의 근거

대운 입술 (24~33세)

원국의 핵심은 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작아서가 아니라 내보내는 통로가 좁습니다. 이 한가지가 이 책의 절반을 설명합니다.

참고 시기는 5~8개월째이고, 맞는 관계는 표현이 분명하고 리듬이 일정한 쪽입니다. 배우자상은 현실 감각이 있고 품이 있는 쪽으로 읽힙니다.

우선 행동 하나만 고르라면 표현의 시점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정리된 뒤에 말하지 말고 정리되기 전에 한 문장을 보내십시오. 성격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라는 말이며, 이 원국에서 충분히 가능한 조정입니다.

출생 시각을 알려주시면 시주(時柱)까지 넣어 더 좁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 기둥으로 해석했습니다.